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정]

성경에는 우리 온가족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소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고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됩니다(5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6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부모님과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성경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정해주신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보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시며 지혜를 쌓아오신 부모님과 어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과 어른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원리일 수 있습니다(2절). 동시에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적 욕심이나 혼자만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이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지혜를 구하는 가정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매 순간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만 매달리지 맙시다(7절). 잠시 동안의 욕심을 추구하다가 한계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지혜를 구하며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통하여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
HAPPY NEW YEAR

2026

설날 가정예배

가족들과 함께 뜻깊고 따뜻한 명절이 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가 정 예 배 순 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1>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기 도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잠언 3장 1~10절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설 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정"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456)

주와 동행

A. B. Simpson, 1897

조금 빠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장 5:24)

430

STEP BY STEP: 8.7.8.7.REF.

A. B. Simpson, 1897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4. 옛 선지자에 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쉬운 기악코드(capo=3rd) Eb→C Ab→F F7→D7 Bb→G Bb7→G7 Eb7→C7